노대동 물빛공원으로 세계 음악여행 떠나요

16일 광장음악회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음악을 만나는 무대가 마련된다.

제61회 광장음악회가 16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열린다.

소프라노 이환희·이승희,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바리톤 정찬경, 테너 김백호씨 등이 출연한다.

프랑스 음악으로는 에디뜨 피아프의 '사랑의 장가', 구노의 '회개', 에릭 사티의 '나는 당신을 원해요'를 들려준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에 삽입돼 화제를 모았던 '백학'과 '카츄사' 등 러시아 민요와 모차르트의 '제비꽃',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빌랴의 노래' 등 독일 음악도 선사한다. 그밖에 미국 민요 '금발의 제니'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포기 앤 배스' 삽입곡도 선사한다.

피날레 무대는 전 출연진이 함께 부르는 '옛타령', '강원도 아리랑' 등 한국 민요가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양림동 공공미술' 주민공청회

광주문화재단, 18일

광주문화재단은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8일 오후 4시 양림미술관에서 주민 공공미술 작품제작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 공공미술 작품은 지난 2~3월 '공공예술 주민디렉터 양성 워크숍 과정' 결과물로 제안된 아이디어 중 선정된 4개 작품을 주민 디렉터와 작가, 전문기획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예정이다. 작품은 ▲펭귄마을 예술 개선 사업 ▲노인정 건물벽면 조형물 작품 ▲호랑가시나무 보호 '플라타너스 쉼 벤치' ▲양림동 캐릭터 디자인 사업 등이다.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공공미술 2.0 시범사업으로 1년간 총사업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의 062-670-74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sia 민주주의 · Asia 예술

亞 30개국 43개 창작공간 광주 행사 / 21일~9월 28일 상록전시관

'아시아 민주주의' 주제 전시·세미나·포럼 출판 등

배영환·중국 허옌창 등 참여…노암 촘스키 영상 강연

아시아 30개국 43개 창작 공간이 광주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1일부터 9월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본관과 상록전시관에서 '2014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결과물을 알리고 아시아 창작 공간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에서 참여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 세미나, 포럼, 출판 등 행사로 진행된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수한 정체성을 되짚어보고 조화론적 민주주의와 예술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와 미래상을 그리게 된다.

아시아 각국의 회원공간이 협력해 만든 전시는 22일부터 9월28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거울과 모니터'를 주제로 열린다.

대안공간 루프의 서진석 대표(총괄 큐레이터)를 주축으로 중국 중앙미술학원 카파미술관(CAFA Art Museum)의 총감독 왕충천(Wang Chunchen)과 짐 톰슨 아트센터(Jim Thompson Art Center) 총감독 그리시아 가위웡(Gridtyiya Gaweewong), 대만 관두미술관(KdMoFA) 공동 총감독 우 다쿤(Wu Darkuen) 등 20명의 기획자가 참여했다.

회원공간 대표들이 추천해 참여하는 작가들은 한국 대표 작가 배영환을 비롯해 중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충격적 퍼포먼스로 해석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허옌창(He Yunchang), 대만의 역사적 사건을 예술언어로 탐구하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야오 쥐청(YAO Juichung) 등이다. 이들은 아시아 민주주의 담론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시각적 결과물로 펼쳐 보인다.

배영환 작 '이상한 열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는 21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21세기 아시아의 조화론적 민주주의와 예술의 공공적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노암 촘스키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황 진단'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영상)을 진행하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베른하르트 제렉스(Bernhard Serexhe, 독일 ZKM의 수석 큐레이터)가 문화·예술적 맥락에서 논평한다. 또 알랭 바디우 연구 권위자 제이슨 바커(Jason Barker), 필리핀 딜리만대 미술비평 교수 패트릭 디 플로리스(Patrick D. Flores)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22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회원 공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협의체 확대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 중장기 협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 결과물은 오는 10월 제작된다. 책자와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홈페이지(www.asiaartspace.net)를 통해 공개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파장 어디까지

케테 콜비츠 작품도 철거되나

홍성담 "日 작가 등 보낸 서한에 '극단적 내용' 있어"

광주 시민단체, 윤장현 시장 독립적 결정 요구 성명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 논란으로 작가들의 작품 철거가 잇따른 가운데 홍 작가가 "일본 작가들이 극단적인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해외 작가들의 작품 철거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해외 참여 작가들마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특별전에서 작품을 철거할 경우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

홍성담 작가는 1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이번 특별전에 작품을 출품한 일본 작가와 사키마미술관 관장이 공동 서한을 보내왔다"며 "서한 내용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내용이 극단적이어서 서한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질 것으로 우려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한을 보낸 이들은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독일 여류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대여해준 사키마미술관 사키마 미치오 관장과 킨죠 미노루, 킨죠 미츠루, 히가 토요미츠 작가로 알려졌다. 사키마미술관은 지난 2005년 홍성담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 곳으로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 1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앞서 이윤엽, 정영창, 홍성민 작가 등 국내 작가들이 작품을 철거한 가운데 만약 홍 작가가 밝힌 '극단적인 내용'이 '작품 철거'라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게 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을 전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비엔날레를 지원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윤장현 시장은 이번 유보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광주비엔날레와 윤장현 시장이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 광주비엔날레의 발전을 위해 독립적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없이는 윤장현 시장이 그리는 '참여의 자치도시' '꿈꾸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 '세월오월'을 본래 계획대로 전시하고, 그림의 해석은 관람객의 몫으로 남겨둘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전 참여작가 8명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에서 모임을 하고 '세월오월' 논란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인기자 kki@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사퇴

"비엔날레 특별전까지만 염두…작품 활동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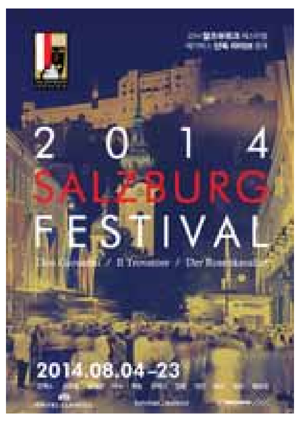
황영성(73·사진)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사퇴한다.

황 관장의 사퇴는 이번 홍성담 작품 특별전 제외 논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1년 3월 2년 임기를 시작한 황 관장은 지난해 연임, 오는 2015년 3월16일까지 관장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황 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관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화가로 돌아가 작품활동에 매진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앞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특별전이 시작되면 사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광주시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뒤 이달 말쯤 사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광주와 미술인 등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준인 공무원 2급 대우를 받는다. /김경인기자 kki@



기다리셨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메가박스 광주점, 16일 '일트로바토레'·23일 '장미의 기사'

1920년 시작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 Festival)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가장 손꼽하 기다리는 음악축제다. 올해 페스티벌은 지난 7월18일 시작해 오는 8월31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처음으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을 생중계했던 메가박스 광주점이 올해도 3편의 작품을 중계한다.

지난 6일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에 이어 오는 16일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은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다. 다니엘라 가티가 지휘봉을 잡고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를 비롯해 프란체스코 멜리 등이 출연한다.

23일에는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가 상영된다. 역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지휘는 프란츠 뵐저 뫼스트다.

소피 코슈 등 쟁쟁한 성악가들이 참여한다. 티켓 가격 3만원.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 참조.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